

전북 생생마을 '대통령상' 쾌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서 정읍 정문마을 대통령상 남원 신촌마을·고창 흥덕면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전북도 생생마을이 전국 최고 행복 농촌으로 우뚝섰다.

도는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북 생생마을이 대통령상 등 3개 분야를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마을은 대통령 상에 정읍 정문마을, 농식품부장관상에 남원 신촌마을과 고창 흥덕면이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왔다.

소득채널분야에 참가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읍 정문마을'은 특산물인 콩을 활용한 체험, 가공식품, 음식 판



정읍 정문마을.

매 등으로 지난 10년간 마을주민 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연간 5억 원의 매출도 올려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가공하는 두부·장국장 등은 맛과 품질이 우수해 도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관환경분야에 참가한 남원 신촌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후담장을 다양한 동·식물을 형상화한 돌 모자이크 담장으로 탈바꿈해 적극적인 마을 가꾸기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지역개발 우수사례로 추천된 '고창 흥덕면'은 하모니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 흥덕면 중심지와 인근 마을 간 주민 교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아 입상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수상은 생생마을 주민들이 팔팔 뚝뚝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전북 생생마을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주민회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예방·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 도모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고위직 공무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를 포함해 본청 실·국장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해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젠더교육플랫폼주최 김명륜 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왜 젠더폭력인가'란 주제로 공직사회 성인지 실태를 짚어냈다.

또, 조직관계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다루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높은 직책에는 높은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문제이므로,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가 정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를 포함해 본청 실·국장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

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관련 지침을 전부개정해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화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개장

소규모 농가 안정적 소득창출·소비자 건강한 먹거리 공급

익산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됐다.

지난 10일 익산시는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개장식을 개최했다.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은 34억8000만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998.72㎡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지역농산물 판매 및 다양한 소비수요에 맞춰 위한 정육, 반찬, 배

이커리 코너 등이 운영된다. 2층은 반찬 나눔 사업장 카페 등 소비자 편의 시설이 들어섰으며 3층은 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조성됐다.

직매장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운영한다.

이 직매장은 로컬푸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직매장 운영을 위해 고령농·

여성농·귀농인 등 영세농 위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교육에 집중해 왔다.

직매장은 370여개 농가와 61개의 가공업체가 생산자로 참여한다.

시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품질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나서는 한편 판매액의 90%를 농가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직매장을 운영한다.

정현을 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은 어업장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창출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 노인일자리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8년 광역지자체 부문 노인일자리아사업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내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궜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전주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익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는 도내 전주시니어클럽과 사단법인인 효림복지센터(군산), 김제시니어클럽 3개 기관이 대상을 군산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를 비롯한 전주지회, 부안군지회, 남원시지회 등 5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복지부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토대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최대 3,5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시상은 2021년 노인일자리아사업 기념행사가 열리는 오는 27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

에서도 시·군과 수행기관, 참여 어르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아사업 예산 2,158억 원을 편성해 5만9,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추경예산에 31억 원을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 노인 가구의 소득 보충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공익형일자리아사업 등에 2,297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곰소 천일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환영'

국회 농해수위원회 위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부안 곰소 천일염'이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김제농협 통합RFC'가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부안 곰소 천일염이 전북 최초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며, 부안군은 지난 2017년 '유유동 양잠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전국 최초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모두 보유한 지자체가 됐다. 또한 '김제농협 통합RFC'가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원택 의원은 곰소 천일염과 관련, "어업유산지정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권익현 군수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농협 통합RFC와 관련 "전북지역 쌀 유통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역세권 개발 전폭 지원해달라"

민주 김윤덕 의원, 노형욱 국토부장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이 전북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 의원은 다가온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전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을 면담이 만났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노 장관과 김 사장의 면담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북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그린뉴딜 1번지인 만큼 예정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전주역 규모 확대를 포함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북이 최근 8개 노선 일괄에 타 통과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제5차 국토·국지도 관련 노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 반영 및 조속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은 비에타 노선사업도 꼭 반영돼 전북도민들께 보다 안전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진 김현준 사장과의 면담에서는 "전북에서 추진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참여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평화주공 4단지 유희부지에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들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형소 김윤덕 의원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의 관점에서 국가중장기 SOC사업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하며 "전주시에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LH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유호상 기자

선운산 도립공원, 멸종위기야생식물 '석곡' 확인

전북도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중 한반도 내륙 최대 군락지 확인

전북도는 지난 3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전북도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결과,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석곡'의 내륙 최대 군락지를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석곡'은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내 암벽지역에서 발견됐고,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종은 보통 수십 개체 단위로 발견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 사면 지역보다 많은 개체가 확인됐고 국내에서 매우 큰 군락지로 볼 수 있다.

'석곡'은 난초과의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해발 200~600m에 위치한 산내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 생육하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으로 분류돼 가치 있는 자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과 남해안 일대의 섬(흑산도, 거제도, 거제도 등)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석곡'의 내륙 최대 군락지를 확인했다.

져 있으며, 최근 조사를 통해 경남도와 전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기록이 있다.

선운산도립공원의 석곡 자생지는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과 인접하고 암벽지대가 발달해 최적의 자생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식물 지리학적으로 국내 내륙지역 분포의 북방한계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반면, 2020년 충남권 대문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개체수가 2개체로 매우 적고 생육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석곡 자생지는 약용 및 관상용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되고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지만 선운산 도립공원 군락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내륙에서 쉽게 관찰되기 어려운 석곡의 최대군락지가 확인된 것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체군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도민들의 보호 의식을 중요시"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이병도 도의원 발의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남북간 합의의 복귀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협상 추진, 그리고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협을 넘어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폐쇄됐다"면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폐쇄 발미로 내세웠던 개성공단과 핵기사업 개발 고도화의 연관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속히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현대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임실 운암에

한완수 도의원 "내륙서도 생산 가능... 지역발전 큰 기여"

'현대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계획(위치변경)이 포함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실군 유치가 확정됐다.

(관련기사11면)

'현대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 원(국비 35, 도비 35)이 투입돼 임실군 운암면 생암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현대리새우 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실습 및 창업교육이 이뤄지며, 향후 연구시설을



체험·교육시설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완수 도의원(임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필요성 여부, 대상 부지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일부 장애가 있었으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부지매입의 용이성,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임실군에 건립돼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최종 통과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의원은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현대리새우를 내륙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며 "스마트 양식기술이 보급돼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